이번 설문조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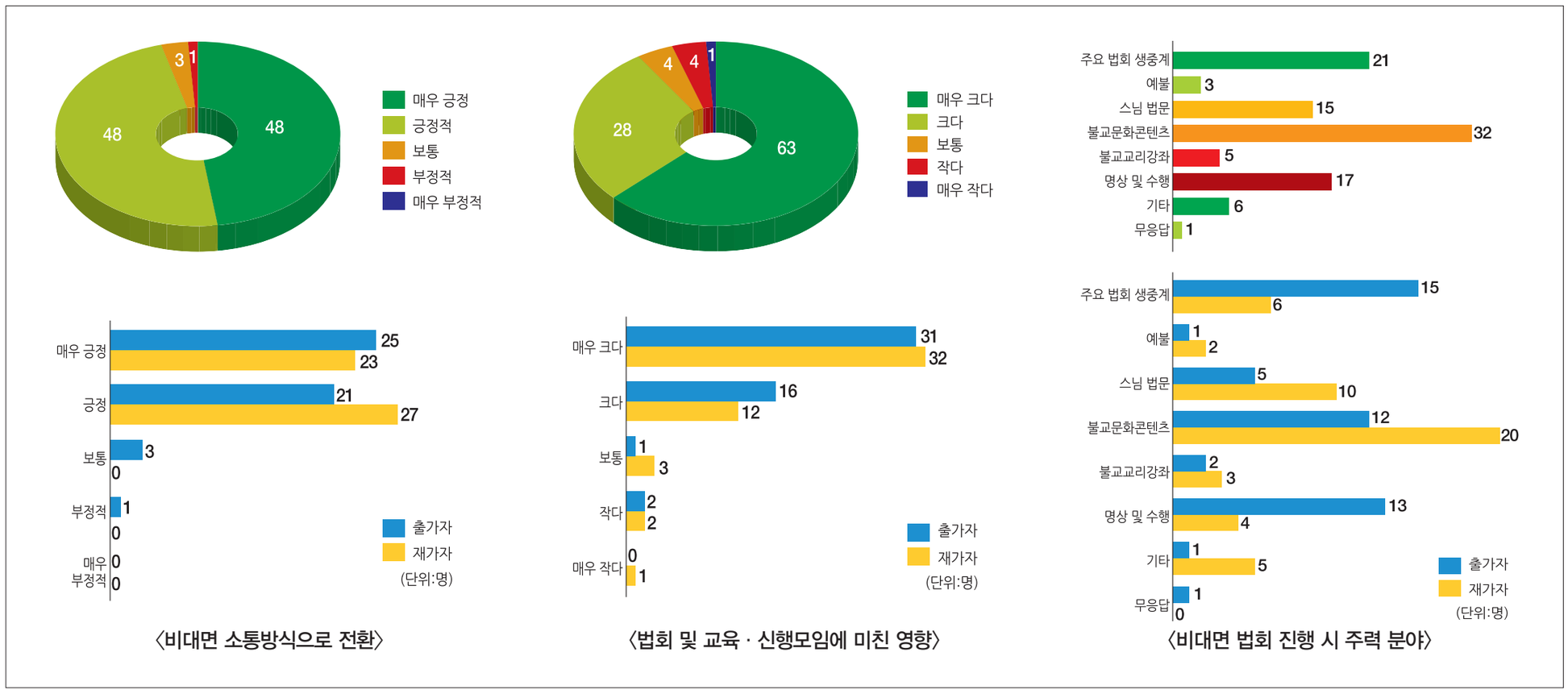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불교계 변화' 설문조사는 본지 창간 26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는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준비와 대안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 불교계는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불가피한 희생도 감내해야 했다. 그렇다면 정부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불교계에 대한 내부 평가는 어떨까. 또 코로나 사태 이후 불교에 대한 국민인식은 신도수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신도들의 발길이 끊어진 사찰은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떤 변화를 고민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온라인 법회 등 비대면 전환은 어떤 수준에 도달했을까. 급변하는 시대, 불교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반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시국에도 아직 불교계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보고서나 통계수치가 발표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설문조사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평가와 변화, 대안 등을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인식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설문은 코로나 사태 전후의 불교계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추려내 17개의 객관식 문항과 6개의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됐다. 본지는 설문을 위해 분야별 불교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선정했으며, 출가그룹 50명과 재가그룹 50명으로 분류해 9월 중순경 2주간 전화와 대면, SNS와 이메일 등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회수율은 100%다.

편집자주



〈비대면 소통방식으로 전환〉 〈법회 및 교육 · 신행모임에 미친 영향〉 〈비대면 법회 진행 시 주력 분야〉

비대면 전환 '긍정적' · 콘텐츠는 미흡…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와 대안은

비대면 포교방식 전환 추세에
전체 응답자의 96%가 '긍정적'
"시대 흐름에 부합" 등 평가해

신도연령 등 사찰격차도 지적
온라인기술 소외 해결 위해선
종단 차원의 포교전략 있어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 오피니언 리더들은 코로나 사태가 불교계 포교환경 변화와 종단 · 사찰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불교계가 산문폐쇄와 법회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사찰에 신도들의 발길이 급감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본지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불교 오피니언 리더들은 코로나 사태가 불교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분야를 묻는 질문에, 53%가 '법회 · 교육 등 포교환경'을 꼽았다. 이어 '종단과 사찰 재정'을 꼽은 응답자가 32%로 집계됐으며, '대외적 이미지'가 12%, '불교신행 및 불교신도수'가 3%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특히 전통적인 사찰 신행활동이 기존의 대면 방식에서 점차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주목했으며, 향후 비대면 시대를 위한 포교전략과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인식해 주목된다.

또한 기존 대면 방식으로 납부되던 기도금 · 보시금이 급감하고 사찰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불교 오피니언 리더의 79%가 그 대안으로 사찰신도의 정기회원제 및 기도비 · 보시금의 정기납부 시스템 도입을 찬성해, 코로나 사태가 향후 사찰 운영시스템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포교환경 변화 크게 인식

불교 오피니언 리더들은 출재가 구분 없이 코로나로 인한 법회 · 교육 등 포교환경 변화를 대단히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포교환경 변화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63%가 '매우 크다'를 선택했으며 '크다'를 선택한 응답자도 28%로 나타났다. 응답자 100명 중 무려 91명이 코로나 사태 이후 포교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인식한 셈이다. 반면 보통과 작다, 매우 작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9%에 불과했다.

이는 전통적인 사찰 법회가 대면 형태로 지속돼 온 것과 달리, 코로나 사태로 갑작스런 변화를 겪으며 비대면 소통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코로나 사태 전후 비대면 온라인 법회의 진행 여부(출가자 대상)와 참석여부(재가자 대상)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확인됐다.

본지는 이번 설문에 참여한 불교 오피니언 리더들을 출가 50명, 재가 50명으로 분류하고 출가집단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 전후의 비대면 포교 시행여부를, 재가집단에 대해서는 코로나 전후 대면 · 비대면 법회 참여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출가집단이 재가집단보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의 인식전환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님 50명 중 코로나 이전 온라인 법회 진행경험이 있는 경우는 11명(22%), 경험이 없는 경우는 37명(74%), 무응답 2명(4%)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법회를 진행 중인 비율은 25명(50%)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법회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한 스님은 신도 고령화와 비대면 기술의 부재 등을 그 이유로 꼽는 등 비대면 방식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반면 재가집단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사찰 대면법회에 54%(27명)가 참석, 44%(22명)가 미참석으로 답했으며, 코로나 이후 온라인 법회에 대해서는 50%(25명)가 참여, 44%(22)가 미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응답 3%를 제외하면 기존에 정기적으로 사찰법회에 참석해 온 불자들이 온라인 법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또 재가 응답자들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법회의 수준이나 비대면 콘텐츠의 미흡함을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일부 재가 오피니언 리더들은 온라인 법회에 대해 "단순히 대면 법회를 촬영해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공간이 주는 신앙적인 느낌의 부재로 흥미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는 상당수가 종단 차원의 콘텐츠 · 기술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대면법회를 그대로 온라인에 탑재하기 보다 온라인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신도 연령대에 맞춘 설법 내용의 변화" "조명과 구도 등 화면의 완성도를 높일 것" "포교 대상의 명확화로 각 타겟층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을 주문했다.

◇비대면 소통 증가는 '긍정적'

불교 오피니언 리더들은 비대면 포교방식의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 사태 이후 불교계 비대면 소통이 증가한 데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선사찰을 중심으로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96%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48%에 달했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48명의 응답자들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스님들은 "비대면이 일상이 될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스님들이 이제라도 대중과의 소통방법을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Z세대 포교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바쁜 현대인들이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그 이유를 꼽았다.

재가자들 역시 "젊은 세대 불교인구 확장에 기여할 것" "이미 사회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일상화됐지만 불교는 이를 외면해 오다가, 코로나 사태로 급격히 변화를 맞고 있으니 다행"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으로 비대면 소통의 증가추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관련 컨텐츠 부족이나 사찰간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비대면 소통 증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상당수 온라인 법회 등 비대면 소통이 불교의

코로나 & 불교

현대에 맞는 불교가치 개발 '1순위'

코로나가 불교에 던진 화두는

전체 응답자 중 31% 선택
전법 · 포교방식 변화 요구

코로나 사태가 불교계에 던진 화두와 관련해 설문에 참여한 불교 오피니언 리더 100명 중 31%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적 가치 개발'을, 21%가 '시대에 맞는 신행프로그램의 개발'을 꼽았다. 특히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적 가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출가그룹이 재가그룹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을 선택한 31명 중 스님은 64.5%(20명), 재가자는 35.5%(11명)으로 집계됐다.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묻는 질문에서 출가그룹과 재가그룹은 다른 지점에 주목했다. 스님들 중에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가 대중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특히 반수에 가까운 스님들(8명)이 수행과 기도 등 승가의 본분사를 강조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부처님 가르침을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내 대중에게 다가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불교의 근본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 사태는 대면방식 위주의 포교신행활동이 비대면 형태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응답자들은 또 코로나 이후 오히려 불교의 가치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봤다. 생명존중과 상생, 연기사상과 보살행의 실천이야말로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마음치유를 이끄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욕구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가그룹의 경우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다. 아무리 뛰어난 가르침이라도 옛 방식을 고집한다면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불교의 근본원리를 보다 알기쉬운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가그룹이 1위로 꼽은 화두가 '시대에 맞는 신행프로그램의 개발'인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마음케어와 힐링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 명상 · 수행의 대중화야말로 불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C교수는 "사찰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개인 혹은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신행 컨텐츠를 개발하고, 스님 · 도반과의 비대면 소통 창구를 확대해 대면의 부재를 메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법회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점에서,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신행프로그램은 소규모 형태의 세심한 교감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D 스님은 "사찰이라는 공간에서 대면으로 이어지던 신행풍토에서 벗어나 이제는 불자들이 각기 삶의 터전에서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온라인 정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정진앱, 수행앱, 온라인 수련회나 신행상담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변화'를 선택한 비율도 12%로 나타났다. 법회 방식의 전환 및 영상매체의 적극 활용이 요구되는 만큼, 종단 차원에서 스님과 종사자,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을 배포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수였다.

이번 항목에서는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도 7명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명이 "전부다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으며, 다른 문항은 탈종교화 현상의 대안 마련(11%)과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 강화(1%), 사찰 운영시스템 전환(9%), 환경에 대한 관심(7%) 등이다.

송지희 기자